

저는 한국의 2대 절기의 하나인 「추석」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추석은 한국어로 '추석'이라고 읽는데, 음력 8월 15일에 행해지는 한국인 모두의 즐거운 날입니다. 원래 이 날은 가을에 수확한 다양한 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조상에게 감사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떨어져 있던 형제자매와 친척이 모여 안부도 묻고, 오랜만의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놀이도 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집니다. 추석에는 많은 맛있는 먹을 거리가 있지만 그중 가장 추석을 대표하는 음식은 '송편'입니다. 그 해 가을에 수확한 신선한 쌀로 만드는 떡으로, 그 안에 콩, 설탕 등이 들어갑니다. 솔잎과 함께 찌기 때문에 그 향이 매우 좋습니다. 추석이라고 하면 송편이 생각날 정도로 유명한 음식입니다.

또 추석에는 여러 가지 놀이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음력 8월 15일은 보름달이 되는 날로 보름달을 보고 자신의 소원을 빕니다. 그것이 '달맞이'라는 추석의 재미있는 행사입니다. 그외에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원을 만들어 노래하면서 도는 '강강수월래'나 불꽃놀이가 있습니다. 보름달 아래에서 행해지는 그런 놀이들은 하는 사람에게도 보는 사람에게도 너무나 즐거운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시골에서 도시로 왔기때문에 추석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시골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귀향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기차표는 매우 구하기 어렵고 버스나 자가용은 너무 길이 막혀 귀향의 길은 매우 괴롭습니다. 그렇다 해도 사람들은 매년 고향에 내려갑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추석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겨우 고향에 도착해 시골집, 노부모와 만나면 그때까지의 피로가 가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불행하게도 서울에서 나서 자라와서 시골의 고향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서울에서 송편을 만들고 달맞이를 합니다. 나는 장래에 나이가 들면 조용한 시골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나의 자녀는 시골의 고향집을 가질수 있겠지요.